

엘 파소와 옵티머스 프라임의 주먹

유령2



“엘 파소”는 미국-멕시코의 국경 도시로, 이주자와 난민들의 경로이다. 미국은 멕시코에게서 이 도시를 빼앗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니카과라 등 중남미 이민자의 이주를 통제하고 허용하고 차단하고 관리해왔다. “엘 파소”는 말 그대로 통과PASS하는 곳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기 위해 존재했던 곳이라는 뜻이다.

트랜스포머의 오토봇은 내전을 겪은 난민이다.

이들은 종 자체의 지속을 위한 식민지배나 노동 착취, 혐오 따위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반발한 반역자들, 혁명군이다.

이들은 가장 더러운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트랜스포머는 “변장을 한 기계 신체Robot in disguise”이다.

이들은 지역적 특색과 생태계에 맞게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킨다. 단순히 외관 뿐만 아니라, 장기, 성격, 생명 구조 자체를 변경시킨다. 이들은 생태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변형시킨다. 이들은 생태계의 문화와 양식을 공부하고 그 내부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이들은 그렇게 선택한 것의 형태와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변신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동물로 변한 이들은 동물로 살아간다. 동물처럼 먹고 마시기도 하고 동물과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동물들을 좋아하거나 동물과 함께사는 종족 (인간) 을 발견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

자신들의 오가니즘과 비슷한 기계 형태로 변형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비행기로 변하는 경우 그렇게 변한 상태로 사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기름을 마시고, 레이싱을 즐기고, 라디오를 들어댄다.

트랜스포머들은 오토봇이건 디셉티콘이건 외모와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변형을 가꾸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단일 개체이고 노화하며 죽고 가끔 부활하기도 한다. 이들의 생식 과정은 불분명하며 기본적으로 불임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성적인데 다수가 남성적이고 일부는 여성적이다. 어떤 트랜스포머 (쇼크웨이브, 보라색 인텔리 트랜스포머로, 여성혐오 클로짓 게이로 통용되는데 가끔은 부역자 여성으로 취급된다.) 의 경우 다소 경멸적인 어투로 이런 대사를 한다.

쇼크웨이브 - “여성 오토봇들 - 난 너희들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¹

여성 오토봇 - “그래,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럴거야.”

쇼크웨이브 - “하하, 아주 고귀한 헛소리로군” “푸송 푸송”

¹ “shockwave hates women” <https://www.youtube.com/watch?v=os9CTM52lyg>

왜인지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 팬덤 잡지의 이름은 트랜스기술TransTech이다.

이들이 지구에 와서 주로 관계맺은 원주민은 아이, 노동자, 외노자, 군인, 연구가들이다.

이 원주민들은 거대하거나 때로는 작은 기계 신체에 끌리는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사적으로, 혹은 그것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변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태들과 관계맺은

트랜스포머들은 인간을 좋아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원주민들과 닮아있기도 하다.

“헤드마스터”라는 어떤 버전에서는 인간들이 외골격 수트를 입고 이들의 머리로 변형되어 합체하기도 한다. 어떤 인간들은 신체가 영구 기계화되어 트랜스포머들과 함께 살아갈수 밖에 없기도 한다.

현재까지 영화화된 모든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이들과 다소 의심스러운 정도로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핵심 인물들은 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이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특히 단짝이 되는 트랜스포머는 범블비로, 평균(트랜스포머 세계에 그런건 없지만) 체구는 보통 이하고 귀엽게 생긴 외모와 호박벌같은 귀여움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이다. 범블비는 주로 이 미성년자들의 “첫 자동차”가 되어준다.

미국 영화에서 청소년들의 첫 자동차는 크나큰 중요성을 갖는데, 부모 세대, 특히 아버지 피규어와의 애착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도 한편 이제는 시작해야만하는 독립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 자동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어쩌면 유일한 유산이며 이들을 대신하기도 한다. 좌석과 휠, 히터와 엑셀이 주는 촉감과 그 진동, 에너지의 전달은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방식의 근친 경험, 다소 성애적일수도 있는 경험을 준다. 특정 트랜스포머 장면에서 트랜스포머들은 이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나 연애 코치, 연애 행위 장소, 외로움 공제, 위험에서의 구출 등 연장된 신체 보철, 다양한 물질적 매개 혹은 움직임이며 보살피는 장소가 되어준다. 오토봇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의 경우, 가끔 그 대상은 청소년이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하기도 한다. 트랜스포머의 관점에서 인류는 아직 원시적인, 어린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에서 어린 걸까? 물론 문명의 단계가 다를 수 있다. 혹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옵티머스가 우리를 신경써준다는 것은 다소 뜬금없기도 하다. 이들은 난민이자 불법 체류자, 범법자, 무기 그 자체, 그리고 문제를 몰고오는 폭풍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그렇게 지성있거나 지혜로운지도 모르겠다. 트랜스포머들은 기본적으로 영악하고 재빠르며 폭력적이다. 성질머리가 드럽다. 치매도 있다. 대부분 남성적이고 아마 남성인 것 같다. (무장 반역 난민 단체 특) 기나긴 전쟁과 생활고로 인해 모두들 남성이 된 것 같다. (위의 쇼크웨이브 대사 참조) 위대한 에너지원에 의해 태어나는 트랜스포머 아기들은 당장 주위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 든다. 어쩌면 옵티머스는 우리가 아직 너무 충분히 반발하지 않거나 부당함을 참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노동자 영웅이 탄생해 세상을 내전으로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지구를 새로운 해방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걸까? "이들은 아직 이른 문명이다"라고 멋진 피터 컬린의 목소리로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걸까? 모든 자원과 자신의 신체와 정체성까지 변형시키며 부당함과 종 전체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를?

오토봇 (동물보호-노동 연합단체)와 디셉티콘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식민지배 파시스트)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다. 이들은 대화를 오로지 치고 박고 싸우고 상대를 죽이기 직전에 멧있는 말을 해줄때만 한다 (이 약해 빠진놈, 프라임의 진짜 힘을 보여주마! 절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군.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것만이 중요한 것 처럼, 평생 못다한 말을 해주듯 아주 치열한 전투장면에서 영화 대부분의 대사가 집중되어있다. 애초에 각자의 진영에서도 서로 대화를 잘 안한다. 기본적으로 모두 군인인 셈이다. 오토봇은 자신들의 괴뢰국가 수뇌부와 그 추종자들의 집단 말살을 목표로, 디셉티콘은 지배와 약탈, 반란군의 절멸을 목표로 살아간다. 오히려 디셉티콘 쪽이 지배와 관리를 통한 지속과 재생산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주려는 사려깊음도 보인다), 오토봇의 경우 가끔씩 난민 쉼터를 짓고 난민 캠프에서 이종족 난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에 가깝다. 디셉티콘 혹은 작품의 다양한 학살 기계 집단 트랜스포머들은 임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토봇, 특히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 자주 감정에 휘둘리거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오토봇의 경우 모든 시리즈에서 그들의 선택은 자기 종족들의 미래를 짓밟고 가능성을 모두 캔슬해버리는 선택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지구를 통해 종족이 번성할 수 있는 원동력을 파괴하고, 지구가 종족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채로 남아있는 본성인 사이버트론의 궤멸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모두 아마도 반쯤은 애완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지구인들을 위해서인것 같다. 모든 오토봇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것이다. 왜냐면 종족의 번영이라는 대의나 세뇌를 통해 운영되는 디셉티콘과 다르게, 오토봇은 영웅 신화와 동정심, 다종족 연대에 의해 굴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프라임은 군대의 결정자로서 집단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를 제외한 다른 오토봇들은 대부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오토봇의 패착중 하나다. 이들은 대의는 항상 반응적이다. 먼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고 옵티머스가 결정을 내리면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중요한건 대의가 아니고 우리가 따르기로 한 사람의 선택이다. 옵티머스에게 항상 너무나 많은 짐이 주어진다. 실제로 싸움에서도 다른 오토봇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옵티머스는 자신의 학살자 운명을 받아들이고 적 동족들을 잔인하게 말살한다. 어찌보면 스트레스 해소인것 같다. 싸울때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섭다.

- 이 나약한 놈.
- 너는 쓰러지고 너의 시체 위에서 나는 일어선다.
- 자유는 모든 지성체의 권리다. (동족을 학살하며)
- 이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다. 우리 실수의 대가를 인류가 치르게 해선 안 돼. 그대들 모두와 함께하여 영광이었다. (자기 고향을 사망 신고 하며)
- 호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살 돌격할 때 내는 소리)

옵티머스 프라임의 경우 처음 행성에 왔을 때는 (1편) 지구 문명의 규격에 다소 당황해하고 이것저것 망가트리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이후 5편이나 리부트에서는 한국인이 젓가락이 움직이는 것 처럼 깔끔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행성과 문명의 크기, 피난처의 실정에 익숙해진 것이다. 매

화마다 달라지는 서사와 목표 속에서 옵티머스는 매번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고향을 재건할 수 있었던 유물을 되찾으러 온 괴뢰국가 원수를 물리치고 어둠속에 숨어서 아직 어린 지구인들을 돕고 상생하겠다고 마음먹은 1편, 정체가 드러나 국가와 군대, 디셉티콘에게 쫓기며 고생하면서 은근히 인간들을 귀찮아하는 2편, 미국과 손잡고 “민주주의의 적”인 중동, 소련 잔재를 치우는 더러운 일을 맡게 되어 심정이 복잡해졌다가, 디셉티콘과 손잡은 미군 덕분에 배신당하고 사냥감 신세가 되더니 아예 지구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져 현실을 깨닫고 마음이 아주 차가워진 3편, 모든 재난과 피해의 원흉으로 몰려 사살 명령이 떨어진 채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있다가 결국 자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떠나기로 마음 먹는 4편, “지구가 사실 트랜스포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갑자기 등장해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트랜스포머)를 재활용하겠다는 창조주에게 세뇌당해 또 더러운 짓을 하다가 막판에 정신차리고 어짜피 망해가는 고향이니 지구를 위해 고향을 버린다는 결정을 하는 5편, 이후 “리부트” 당한 이후 등장해서는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지 인간을 전혀 불신하고 오히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만 싶은 눈치다. 인간이면 학을 떼는 그는 동물 성애자인 다른 옵티머스에게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교육받고 다종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 (혹은 너무 고생해서 그만하고 싶은 것일수도 있다) 옵티머스 프라임의 정신이 망가지지 않을리 없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시네마 뿐만 아니라 팬픽이나 만화, 애니 등 모든 종류의 재현에서 “가치”를 담당하고 있는 존재이다. 좋지않은 인식을 가진 하급 노동자였던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와 시위를 하다 강경한 진압에 사망하고 만다. 우연히, 혹은 깊은 뜻에 의해 그는 전설로 내려져오는 예언에 기록된 반란군의 리더로 되살아나고, 그 모든 힘든 여정이 시작된다.

트랜스포머는 너무나 많은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작품의 재현을 중심으로 분석이나 비판을 전개하기는 어렵다. 재현의 주체에 따라 너무나 이야기의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린시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면서 “맥시마이즈으으으으”라고

외쳐야만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고 평소에는 보통 동물의 형태 (쥐, 코뿔소, 고릴라, 치타) 로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를바 없이 사는 동물성애 외계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저퀄 3d 애니메이션 비스트 워즈로 입문해, 비격거리는 나무 몽둥이가 팔다리에 붙어있는 것 같은 초기작 g1을 거쳐, “일본” 적으로 해석한 버전에 감탄했다가, 이후 팬픽의 세계로 진입했고 마침내 영화 버전이 도래했을 때의 감동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 진짜 같았다! 트랜스포머는 실존했다!

우리에게 8,90년대 질감의 배경 속에서, 도대체 지구인지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행성과 황무지에서 오로지 네모 세모 덩어리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변했다는 순서의 사실 만으로 “이들은 변신할 수 있는 존재고 이들은 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초창기의 크래피 씯에서, 미국, 경제, 전쟁, 군대, 핸드폰, 인터넷,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가는 세계 2000년대 초반 그 한복판에 갑자기 우리 앞의 트럭과 스포츠카가 구기가각각 이라는 소리를 내더니 우선 바퀴가 돌아가고 엔진이 열리더니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얼굴이 된 다음에 중력을 이겨내고 일어서서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그 모든것들이 여기에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시리즈가 계속 되면서 모든 새로움과 강렬함, 그 진실성과 의미는 모두 퇴색하고 서사도 캐릭터도 자본적 치매에 의해 망가져갔다. 오토봇과 옵티머스 프라임은 디셉티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탄생시켰던 사이버트론 행성, 즉 할리우드와 마이클베이, 시장에 의해 전멸한 것이다. 결국 옵티머스 프라임은 패배했다. 트랜스포머의 사운드 트랙은 아직까지 나에게 웅장하지만 슬픈 것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왜 5편 모두 트랜스포머의 이야기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했을까? 가장 가까운 원작인 G1에서도 인간은 중요한 집단이 아니다. 모든 트랜스포머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종족은 자원 부족과 착취, 혐오로 멸망이 가까워짐
2. 가장 낮은 곳에서 영웅이 죽음을 통해 탄생하고 내전이 발생함
3. 모성이 내전에 의해 파괴됨
4. 난민들이 새로운 이주처를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민족 부흥 물건과 함께 가장 약한 녀석을 먼저 탈출시켜 보냄
5. 약한 녀석을 쫓아 겨우 도착한 난민들은 희망을 걸고 이주처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함
6. 원주민들과 힘들지만 열심히 상생을 도모함
7. 그러나 억압자들도 이주처에 도착했고, 사실 이주처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으며, 복잡한 비극이 기다린다.
8. 이주민 전체가 죽거나 난민 중 전체가 죽거나의 선택지가 계속 대두됨. (에너지가 한정적이거나 둘의 생태 가능성의 조건의 차이 때문에)
9. 결국 난민들은 억압자들과 죽고 사는 전투를 치루고 이주처에서 떠나거나, 원주민들과 척을 지거나, 숨어 살게 된다.

가장 급진적인 스토리 아크에서는 이주처도 트랜스포머 였으며, 원주민을 창조한 것이 트랜스포머를 창조한 것과 같고, 트랜스포머가 원주민민의 미래이거나 원주민이 트랜스포머의 미래인 것이다. 창조주에게는 아무런 비전이나 위대함이 없고, 영웅 전설은 염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킹왕짱) 누군가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실제로 최초의 트랜스포머 g1 극장판에서부터 옵티머스 프라임은 죽고 어린 아이가 그의 의지를 이어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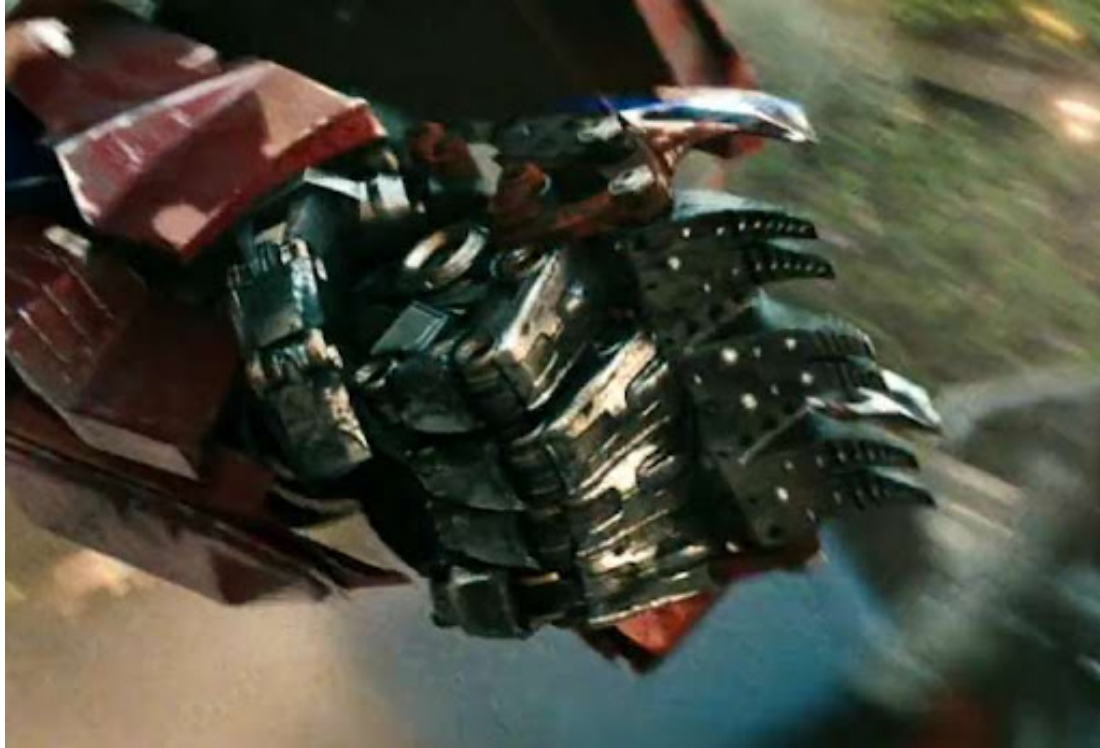
옵티머스 프라임은 근원부터가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이야기였고, 모든 시리즈에서 꼭 한번은 죽는다. 옵티머스는 죽음에서 태어나 죽기위해 존재하는 캐릭터인 것이다.

트랜스포머는 언제나 풍성하고 다양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IP지만, 영화화의 역사에서는 끝을 맞이했다. 마이클 베이의 1~5편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13명의 스토리 작가가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모두 섞으면서 종말을 맞이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랜스포머 역사는

태초의 13인의 프라임들로 부터 출발한다.) 새롭게 리부트한 트랜스포머는 훌륭한 필름을 제작했지만 완구의 판매 부진으로 투자를 받지 못해 다시 막을 내렸다. 트랜스포머는 멸종한 것이다. 그러나 스토리가 망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치매에서 허우적 거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맥을 이어왔다. 바로 변신 장면과 전투씬이다. 트랜스포머들은 모두 자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보같은 소리와 함께 (도대체 그 소리는 무엇인가? 변신 전에도, 변신 중에도, 변신 후에도 들리는 기기고가각 이라는 소리, 이 소리는 마찰이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다. 변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부연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외침이다. 이는 깃발 같은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² 변신 장면과, 거대 기계 신체들이 이리저리 부딪치는 장면,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움직이고 부서지고 부딪치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액션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관과 시간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과 시위에서 그리고 내전에서 “죽었고”, 그가 “부활”했고, 도처에 그가 “변장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내전으로 몰고, 운명을 엮고, 종의 운명을 걸더라도 물려설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매일매일 우주의 살아남은 동지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최후의 순간에 일회성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와 주먹에 너클을 끼고 압제자에게 최후를 제공한다. 지구를 테라포밍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트랜스포머의 그리운 고향 사이버트론 행성은 멸망한다.

² [이도훈의 영화의 검은 구멍] 트랜스포머의 변신은 유해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할리우드에 나타난 혼돈의 영화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5357



트랜스포머 3편, 시카고, 마지막의 마지막에 역시나 부활해 달려온 옵티머스. 모든 적을 5초만에 섬멸하고, 전황을 바꾼다. 그는 앞서 등장했던, 한 때 동지였고 자신들의 고향을 살리기 위해 지구 테라포밍을 거의 완수하고 있는 쇼크웨이브에게 자동차 크기만한 주먹에 스파이크를 달고 펀치를 날리고, CG 카메라는 영화 내에서 슬로우모션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 펀치를 보여준다.³ 어떤 액션 장면도 그렇게나 무거운 하나의 주먹을 날리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다. (물론 내 착각이다.) 자신들의 고향을 버리고, 피난온 곳에서 원주민들과 살아가기 위해, 영화의 스토리와 장르 그리고 미래는 망해가지만, 여기에 자신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스너프 필름처럼 잔인하게 적의 옆구리를 꿰뚫기 위해, 온갖 행정 업무와 다종족 난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수동공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의 주먹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영화사상 가장 아름답고 섬뜩하며, 압도되고 감동적이며, 고취되고 슬픈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것이다.

³Transformers 3: Optimus Prime Rage <https://www.youtube.com/watch?v=F3D0zqEbhtTo>